

여수상의, 국토부에 여수공항 취항노선 증편 건의

“매년 100만명 다녀간 여수공항 여수~김포 등 노선중단 등 우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5일 여수공항 취항노선 증편을 국토교통부와 여수취항 항공사에 건의했다.

여수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광양만권의 항공 운항 등 광역교통망 관련 SOC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상의는 “코로나19 이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더 큰 경제 악재로 또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울촌

광양항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여수세계섬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이 차질 없이 순행 되는데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항공 운항 등 광역교통망 SOC는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여수공항에 취항하던 일부 항공사가 국제선 노선 변경 및 재정지원금 중단 등의 사유로 여수공항 취항을 철회한 점과 일평균 22편의 여수공항 취항 항공 운항 편수가 평균 10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점, 여수-서울 김포를 오가는 오전 노선 중단 등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는 항공편수는 줄었지만, 요금은 더 늘어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수상의.

지적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취항이 어려운 시

기었던 작년만 하더라도 여수에서 서울 김포 왕복 요금이 5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주중 편도 요금만 7~8만 원 인상으로 뒀다고 상의는 꼬집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6개월 전 구매한 항공료의 몇 배를 지급해야 함에도, 취항사의 여수노선 포기로 항공권 구매조차 할 수 없고, 서울 김포로 가는 오전 노선도 사라졌다”며 “매년 100만 명의 이용객 다녀갔다고 홍보하던 여수공항으로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상의는 남해안 남중권의 항공 관문인 여수공항을 취항하는 노선을 빠른 시일 내 증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애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여수시, 홍보활동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여수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홍보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내용 △주요 위반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제작될 계획이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청렴·인권 실천 결의대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지난 2일 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청렴·인권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및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인권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결의문은 △공직사회 부패발생 근절 △알선·청탁 및 연고주의 근절 △갑질, 금품수수 등 권한 남용 예방 △신뢰받는 공직사회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등이다. 인권경영선언문은 △세계인권선언 및 UNGC 10대원칙 준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회적약자 권익 보호 등으로 조직문화 조성을 결의했다.

부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및 인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화 이사장은 “청렴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화장동 차고지 개소·교통캠페인 여수시 여천동 6개 자생단체

여수시 여천동 6개 자생단체는 지난달 27일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소에 맞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여수선사유적공원 인근은 화장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 40여대가 주차를 하면서 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휴게공간의 부재로 버스기사들의 안전운행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이를 해소코자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됐다.

여천동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은 차고지 개소에 맞춰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에 맞는 시민운동으로 개편된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성공 추진을 위해 교통캠페인을 전개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여수시, 11월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11월까지 ‘동네서점바로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네서점바로대출서비스’는 20세 이상 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에게 지역서점에서 책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됐다. 대출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월 2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 또는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에서 하면 된다.

대출방법은 알림톡으로 신청도서 수령 안내를 받으면 도서대출회원증을 지참하고 지정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하면 된다. 올해 협력서점은 △가을서점(여서동) △나라서적(신기동) △미래서점(죽림) △여수고서점문구(공화동) △진솔문고(여서동) △한려서점(여서동) △한빛서점(학동) △흥지서점(충무동) 등 8개소다.

여수=이경기 기자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여수시, 6~10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6~10일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성인과 학생 맞춤형 총 11개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양말목공예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감성을 엮는 마크라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 금융교육 △봄과 함께 감성 캘리그래피 등 5개이다.

초등학생 대상은 △책으로 만나는 창의·융합 △북! 북! 놀이터 △책으로 만나는 향기놀이 △어린이 경제놀이 △마음 면역력을 키우는 미술 △코딩으로 우주 탐험 등 6개 프로그램이다.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를 통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해당 도서관은 △꿈을키우는(061-653-1117) △청솔글누리(061-644-1112) △화양열린(061-681-9676) △여문늘벗(061-654-5120) △국동(061-659-5299) 등이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33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2391명이 참여해 276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애인복지관 중식 봉사활동

여수시 미평동 주민자치회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등 250명의 점심 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중식봉사를 펼쳤다.

여수시 제공

‘공공갈등관리심의위’ 첫 출범... 갈등 예방·조정

여수시 공공정책 수립·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시의원·법조계·언론·시민단체·갈등 전문가·시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선제적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최근 김종기 부시장과 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

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갈등조정 전문가·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임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여수시의 경우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공공갈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갈등이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예방과 해결 노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기 위원장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는 공공갈등이 심화되며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라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역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2021년 말 여수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여수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바 있다.

한편 여수시공공갈등심의위원회와 주무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갈등 발생 전이나 후 절차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정 기구나 조정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협의체 구성 등 난관을 극복하려는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오천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위해 통근버스 무료 운행

도비 3억 등 6억 투입

여수시 오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가 운영을 시작한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무료 통근버스 사업은 전남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분야)’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6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추진된다.

통근버스는 △신월 금호타운 A △전남대 국동 캠퍼스 △웅천부영A(2차) △

여서청사 △삼일중에서 오전 7시께 출발하는 5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는 올해 ‘통근버스 스마트 앱’을 구축해 정류장에 따른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사업수행기관인 여수상공회의소는 오천 산단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운행노선을 확정하는 바 있다.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운행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통근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은 여수상

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근버스 운행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천 일반산업단지는 80년대 이후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점차 업체 수가 줄면서 현재는 40개 업체가 입주해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